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내가 잊고 있던 빛을 주님은 오래전에 지워 주셨습니다.
 그 자비의 손길은 말없이 내 삶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누군가의 작은 빛을 마음에 적어 둡니다.
 지우지 못한 이름 하나가 가슴 한편에 매듭처럼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그 매듭을 억지로 끊어 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풀려난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일흔일곱 번,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 자비가 흐르고 있음을 믿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탕감해 주신 사랑을 가만히 헤아리며,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하늘 하나를 열어 줄 수 있기를.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09/03/2026 기준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27,125

현재 참가 인원 - 70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24 예물 준비 성가: 212, 220 성체 성가: 175, 170 파견 성가: 283

연중 제23주일(9/6)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7명	64명	258명	79명	43명	491명



성녀 글라라

- 평생 단순 · 겸손 · 가난의 삶 살아
- 모범적인 삶에 기도 부탁 줄이어
- 복음적 가난 지키는 회칙 만들어 승인받기도

“성 프란치스코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자매들은 거룩한 단순성과 겸손과 가난의 길을 따르며 또한 값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자매들은 우리 공로로써가 아니라 온전히 자비의 아버지 자체이시고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자비와 은총으로써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언제나 좋은 명성의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성녀 글라라의 유언 중에서) ‘거룩한 단순성과 겸손과 가난’, 그것들은 성녀 글라라(Clara Assisiensis, 1193/1194~1253)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실천했던 덕목들이었다. 글라라 수도회의 창설자로 사후 불과 2년 만에 교황 알렉산델 4세에 의해 시성된 글라라는 오직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 기도로써 얻을 수 있는 참된 삶을 그대로 보여 주는 성인이었다.

성 프란치스코 성인으로 이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서 장녀로 태어난 성녀는 어머니가 기도 중에 세상을 밝게 비출 빛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고 난 후 태어났기에, ‘빛’이라는 의미를 지닌 ‘글라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글라라는 성 프란치스코의 열정적이고 기쁨에 찬 설교를 직접 듣고 난 후 그 형제들의 생활을 보면서 그러한 복음적 생활에 대한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됐다. 이에 그녀는 1212년, 18살 때의 성지주일 밤 가족들이 곤하

게 잠든 사이에 집을 나서 프란치스코를 찾아가 그의 첫 여성 동료가 된다. 스승이며 영적 아버지인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글라라는 세속을 완전히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과 사랑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형제회에 여자 수도회가 없어서 인근의 베네딕토 수녀원에 머물던 글라라는 부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삭발한 자신의 머리를 보여 주며 이를 뿌리치고, 자신을 따라 복음적 생활을 함께 시작한 동생 아녜스와 함께 성 프란치스코의 도움을 얻어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회’(글라라 수도회)를 시작했다.

수도회의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비천한 중, 겸손한 하느님의 여종으로서 글라라는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갔다. 특히 가난한 동정녀로서 복음적 삶의 모범을 보여 주었던 글라라에게 당시의 교황과 추기경, 왕과 귀족들까지도 그녀의 기도를 부탁하고 자문을 구하러 찾아왔다. 글라라는 성 프란치스코가 마련해 준 아시시 인근의 성 다미아노 수도원에서 이처럼 복음적 삶을 살았다. 그리하여 이 수도원은 수도회 가족들 뿐만 아니라 수도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이웃이 되어 그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다. 글라라는 한편 프란치스코에게서 배운 복음적 가난의 생활과 형제회와의 유대를 끝까지 보존하고자 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여성 수도 공동체가 안정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글라라



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복음적 가난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1228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로부터 공동체가 재산 소유를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가난의 특전’(Privilegium Paupertatis)을 인정받았다. 그러다가 1240년경 글라라와 성 다미아노 수도원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아시시 지역에 사라센 병사들이 포함된 군대가 들이닥쳤고, 수도원의 봉쇄 구역까지 위협받게 된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깊은 병으로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던 글라라는 성체께 온전히 의탁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수도원을 위협하던 병사들이 물러났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은 후대에 성체 앞에서 드린 글라라의 깊은 믿음과 기도가 수도원과 아시시를 위협에서 보호한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다음에 계속〉

공지 사항

1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9/27(주일) 9:30 연도, 10:00 미사
추석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지
향예물을 미리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령미사가 봉헌되는 당일 9/27(주일)
오전 8:00, 11:30 미사는 없고, 오후 5:30
미사는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구역 음식봉사 / 구역의 날

● 일시 : 9/13 (주일)
● 음식 봉사 : 밀크릭 구역
● 메뉴 : 새우와 야채볶음 덮밥
각 구역원들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3 구역장 회의

● 일시 : 9/20 (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9/20 (주일) 8시 미사 후
● 장소 : 110호 교리실

5 한국학교 교사 / 보조 교사모집

성김대건 한국학교 26-27학년도 교사, 보조
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성당과 한국학
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
국학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
원 바랍니다.

6 특별 헌금

● 일시 : 9/19(토) - 9/20(주일)에 시애틀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특별 헌금이 있
습니다.

7 가톨릭 성서 모임 그룹 공부

● 모집 반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복음
● 모집 대상 : 각 전단계 공부를 마친 분
● 모집 기간 : 9월 말까지
● 모임 시작 : 그룹별 추후 연락
● 신청 : 본당 사무실
● 문의 : 최정필 교육분과장

8 영어권 성서 모임 모집

young adult + adult
BIBLE STUDY
영어권 성서모임

Genesis | Exodus
창세기 | 탈출기

Come join us as we dive into the Word of God!
Schedule to be determined after registration.

<https://tinyurl.com/cblm2026>

scan to RSVP

CBM
since 1972



9 주일학교 & Youth Group 학생 등록

26-27년도 Faith Formation(주일학교)와
Youth Group 학생 등록을 받습니다.
시애틀 대교구의 명칭 사용에 맞추어 영어 명
칭은 Sunday School 대신 Faith Formation
이 사용됩니다.

● 주일학교 & YG 시작 : 10/11(주일)
● 등록비 : 1명 \$120 / 2명 \$220 / 3명 \$300
4명 이상 학생 1인당 \$100
★ 3학년 : 첫영성체 준비
★ 7-8학년 : 2년 과정의 견진성사 준비 프로
그램으로 진행됩니다.
★ 9-12학년 : Youth group(임시 운영)으로
추후 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일학교 문의 : 장우혁 유스티노
(whyek.jang@gmail.com)
박지윤 레이나 (reina.park1011@gmail.com)
● YG 문의 : 김형석 그레고리오
(h.greg.kim@gmail.com)

등록은 QR 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송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
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
를 들어 주소서.

제1독서 집회 27,30-28,7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제2독서 로마 14,7-9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
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8,21-35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
해야 한다.〉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
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옥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بل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통탄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터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 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 & 편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풀락 (떡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9/24/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7/26)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2026년 제11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2026년 9월 1일)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사 2,4)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요한 10,10 참조). 이 생명의 선물은 우리가 제자로서 받은 사명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받은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라는 부르심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올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묵상하고 그 생명을 지탱해 주는 지구를 소중히 여기도록 다시 한번 초대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창조주께 찬미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창조 세계의 조화로운 균형이 깨지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상처 입은 세상에서 터져 나오는 치유와 평화를 향한 하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생명의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 14,27). 이 평화는 피상적인 평화도, 일시적인 평화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과 모든 인간에 대한 그분의 보살핌에서 샘솟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이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사이 예언자는 나라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이사 2,4)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변화되는 시대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폭력과 전쟁에 힘을 쏟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정반대의 상황을 목격합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전쟁터를 넘어 멀리까지 퍼져 나갑니다. 전쟁은 목숨을 앗아가고, 가족을 해체하며, 수많은 강제 실형민을 만들고, 공포와 불의와 분열을 심화시킵니다(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 77-82항 참조). 또한 전쟁은 후대까지 지속되는 사회적 생태적 파괴를 남깁니다. 게다가, 흔히 무장 분쟁과 환경 훼손이 서로 맞물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물과 공기와 같은 필수 자원들을 오염시키며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냅니다. 이는 또 다른 충격을 빚는 데 일조할 수 있는 빈곤, 불평등, 새로운 사회적 긴장을 부채질합니다.

더 나아가, 전쟁은 생명의 그물 전체를 훼손하는 상처를 만들어 내어, 각 개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류 가족 전체와 맺는 더 넓은 관

계망 그리고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도 해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며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지구를 돌보는 데 실패하였음이 드러납니다. 이는 정치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실패이기도 합니다. 비뚤어진 욕망에 뿌리내리고 인간의 자유와 힘을 오용하는 데에 기초한 전쟁은 평화의 복음에 반대되는 증거입니다.

앞서 말한 위기들은 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 대한 더 깊은 충실성, 서로에 대한 사랑, 창조 세계의 선물에 대한 존중 안에서 열매 맺는 마음의 회개도 요구합니다. 폭력, 불의, 생태 훼손 등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격하는 불화는 단순히 체계나 구조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힌 더욱 근본적인 저 불균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사목 헌장, 10항). 인간의 마음은 그저 감정을 담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중심, 곧 이성과 욕망, 의지와 양심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음에서, 우리 안에 서로 모순되어 존재하는 갈망들, 곧 사랑과 무관심, 진리와 허상,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씨름합니다(야고 1,14-15 참조). 그러므로, 전쟁의 상처와 지구의 훼손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일깨워 주셨듯이,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즉위 미사 강론, 2005.4.24.). 이는 우리 주변에서 무너진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안에서도 무너져 있음을 깨닫도록 촉구합니다.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구조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또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분쟁과 피조물 착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은 하나의 윤리적 문화적 위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계에 대한 감각의 상실, 지배하려는 욕망, 즉각적인 이익의 추구,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능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이사 2,4)고 한 예언자의 호소는 국가들을 향한 전망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해악을 생명으로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이루려면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하느님 은총에 협력하여 더 깊이 회심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욕망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덕행을 기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느님께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가 없으면, 평화는 여전히 취약하고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파괴를 위하여

사용되던 것들이 그 방향을 돌려,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굶주린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피조물을 보호하는 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태적 회개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의 결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217항 참조). 평화는 이처럼 마음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관계들, 공동체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도전들이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변화의 수단을 마련해 주십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는 전쟁의 무기 대신, 치유하고 화해하며 사랑의 문명을 건설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생태계’, 곧 창조 세계, 인간관계, 인간 마음 그 자체의 생태계들을 지켜 나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진정한 도구는 파괴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진리, 대화, 인내, 선행, 정의, 자비, 이해, 배려,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으로 빚어지고 하느님 은총으로 살아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들만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쇄신하며 세상의 상처를 치유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평화를 추구하고 피조물을 돌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잠언 4,23 참조).

겸손과 믿음으로 이러한 임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 활동을 돕는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광야에서 낙원으로, 분열에서 친교로, 폭력에서 평화로 나아가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시어, 우리 시대에 참으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바꾸고, 복음의 약속을 세상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며, 창조 세계 전체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 차게 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바티칸에서
2026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레오 14세 교황